

현대 자본주의 사회 민낯 ‘엑스’ 다시 깨어나다

영화 ‘어쩔수가 없다’로 돌아온 박찬욱 감독의 신작이 화제를 모으는 가운데, 그 원작 소설 ‘엑스(The Ax·최필원 옮김)’가 새 표지로 다시 출간됐다. 미국 추리소설계의 거장 도널드 웨스트레이크(필명 리처드 스타크)의 대표작으로, 자본주의 경쟁 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블랙유머와 서늘한 서사로 그려 낸 작품이다. 박찬욱 감독은 과거 인터뷰에서 이 소설을 ‘언젠가 꼭 영화로 만들고 싶은 필생의 프로젝트’로 언급한 바 있다. 프랑스의 거장 코스타 가브라스가 2005년 ‘엑스, 취업에 관한 위험한 안내서’로 먼저 영화화했지만, 박 감독은 자신만의 시선으로 동시대 현실을 담아낸 새 버전 ‘어쩔수가 없다’를 완성했다.

박찬욱 감독 신작 ‘어쩔수가 없다’ 원작
도널드 웨스트레이크 대표작 재출간
무너진 일상 속 드러나는 시대의 초상



‘엑스’는 1997년 미국에서 처음 출간돼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며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산업자동화와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직이 이어지던 1990년대 미국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정리해고의 폭력성과 중산층의 붕괴를 정면으로 다뤘다는 점이 독자들의 깊은 공감을 얻었다. 제목 ‘Ax(도끼)’는 해고를 뜻하는 은유적 표현이기도 하다.

소설은 제지회사에서 23년간 근무하다 하루아침에 해고된 중산층 가장 버크 데보레의 시선으로 전개된다. 그는 처음엔 곧 재취업할 수 있으리라 믿지만, 2년 넘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절망에 빠진다. 실업수당마저 끊기고, 가족과의 관계도 무너져가는 가운데, 그는 점점 한계로 내몰린다. 결국 버크는 가상의 제지회사를 만들어 구인공고를 내고, 자신보다 조건이 좋은 경쟁자들의 이력서를 모은 뒤, 그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간다.

버크는 자신이 하는 짓이 잘못된 일임을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다’고 되뇌는다. 기업이 구조조정을 ‘불가피한 선택’이라 말하듯, 그는 생존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행위를 합리화한다. 웨스트레이크는 이 서늘한 문장을 통해 신자유주의 시대의 비인간적 경쟁과 불안, 그리고 그 속에서 붕괴해가는 개인의 윤리를 집요하게 파고든다. 인간이 사회 구조 속에서 얼마나 쉽게 과물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동시에, 제도적 폭력이 개인의 일탈로 어떻게 치환되는지 냉정하게 묘사한다.

저자인 웨스트레이크는 범죄와 추리, 사회 풍자를 결합한 독보적인 작가로, 에드거 상을 세 차례 수상하며 ‘그랜드마스터’로 불린 인물이다. 그는 필명 리처드 스타크로 ‘파커’ 시리즈를 집필하며 냉정하고 현실적인 범죄 세계를 구축했고, ‘엑스’에서는 범죄를 통해 사회 시스템의 불합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도끼’라는 단순한 상징 안에는 일터에서 잘려나간 수많은 삶의 비명과 경쟁 사회가 만들어낸 광기의 초상이 담겨 있다.

한편 1998년 국내 초판 이후 꾸준히 회자돼 온 이 작품은 출판사 오픈하우스를 통해 재출간본으로 독자들을 만난다. /최명진 기자

새로 나온 책



▲대단한 인체=아마모도 다케히토 지음, 서수지 옮김, 예병일 감수
우리는 평생을 함께할 몸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 건강한 몸과 병에 걸린 몸의 경계는 어디에 있으며, 사람은 무엇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대단한 인체’는 이러한 굵직한 질문부터 눈물이 날 때 코를 흘쩍이는 이유, 동과 방귀를 기가 막히게 선별하는 항문의 기능까지 일상에서 대수롭지 않게 넘겨 온 몸의 비밀을 흥미롭게 풀어낸다. 의사의 눈으로 인체를 낱낱이 살피는 동안 몸에 대한 이해는 깊어지고 나와 가족, 친구들의 몸중에 과학으로 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위즈덤하우스·1만9천500원



▲여자가 사랑한 여자들=이예지 저자
빛나는 이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깊이 있게 조망했으며 인터뷰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이예지 에디터. 그가 우리가 지금 가장 사랑하는 여성 15인의 목소리를 한 권에 담았다. 작가 정서경, 뮤지션 김윤아, 배우 전도연, 배우 선수 김연경, 영화감독 이경미, 배우 심은경, 뮤지션 전소연, 작가 김은희, 미술감독 류성희, 소설가 정보라, 댄서 모니카, 뮤지션 씨엘, 아나운서 강지영, 희극인 김민경, 소설가 최은영까지. 한 분야의 프로페셔널이 되기까지 고군분투의 시간들과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용기로 나아간 궤적 그리고 여성 동료들과 함께 한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 /위즈덤하우스·1만8천500원



▲냉면의 역사=강명관 저자
저자는 방대한 한문 텍스트를 뒤져 내 독록하면서도 굵직한 저작을 내온 한문학자다. 이 책은 자칭 ‘냉면주의자’인 그가 어느 날 문득 궁금증을 풀기 위해 파고든, 거창하지 않되 맛깔난 ‘냉면 책’이다. 신라 진흥왕이 순행 길에 얼음을 띄운 메밀국수를 먹었다는 ‘기원’에서 시작해 진주냉면의 부활과 물냉면의 탄생에 이르는 ‘문화’까지 냉면의 발자취를 밝혀냈다. 15세기 ‘산가요록’을 비롯해 ‘음식디미방’, ‘계미서’ 등 고조리서를 뒤져내 선조들의 국수 조리법을 소개하기도 한다. 여기에 문학, 과학, 경제학, 사회학 등 다양한 측면에서 냉면에 관한 거의 모든 이야기를 다룬 ‘완결판’이라 할 수 있다. /푸른역사·2만8천원



▲내가 꿈꾸는 내가 될게=정나래 저자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주저하는 청소년과 청년, 흔들리면서도 다시 일어나고 싶은 모든 이에게 전하는 긍정과 용기의 기록이다. 무시당하기 일쑤였던 시골 소녀는 어떻게 독일 대표 청소년 합창단 지휘자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저자는 힘들었던 지난날을 회고하며 ‘내 삶의 가능성을 지휘하는 생각 발견법’을 제안한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의 작은 실천이라는 것, 실패하고 내가 나를 의심하더라도 그런 마음에 지지 말자는 것, 내가 나를 제일 사랑해 주자는 것이다. /책클·1만5천원

멈추지 않는 몰락의 춤...2025 노벨문학상이 주목한 이름

헝가리 작가 크라시너호르카이 라슬로 대표작 ‘사탄탱고’



올해 노벨문학상은 헝가리 작가 크라시너호르카이 라슬로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은 지난 9일(현지시간) “종말론적 두려움 속에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하는 그의 강렬하고 선구적인 작품에 상을 준다”고 밝혔다. 헝가리 작가가 이 상을 받은 것은 2002년 케르테스 임레 이후 23년 만이다. 1954년 헝가리 줄라에서 태어난 크라시너호르카이는 부다페스트 대학에서 문학을 공

부한 뒤 여러 나라를 오가며 집필을 이어왔다. 그는 고골, 멜빌, 카프카 등 세계 문학의 거장들과 자주 비교되며 인간의 불안과 세계의 몰락을 깊이 있게 다루는 작가로 평가받는다. 2015년에는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의 작품들은 대부분 붕괴해가는 세계 속에서 인간이 끝내 붙잡는 희망과 구원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그런 세계관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작품이 바로 대표작 ‘사탄탱고’다. 해체된 집단농장 마을을 배경으로 한 이 작품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크라시너호르카이 라슬로 /로이터=연합뉴스

은 절망과 희망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다. 가난과 불신 속에 살아가는 이들은 죽은 줄 알았던 인물 이리미아시의 귀환 소식에 구원을 꿈꾸지만, 끝내 같은 자리로 되돌아간다.

소설은 ‘탱고’의 스텝처럼 앞으로 여섯 걸음, 뒤로 여섯 걸음을 밟는 구조로 짜여 있다. 이 순환적 형식은 몰락한 세계에서 벗어나려는 인간의 시도가 끝내 제자리로 돌아오고 마는 비극을 상징한다.

이 책은 1994년 헝가리 영화감독 벨라 타르에 의해 영화로 제작돼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으며, 문학평론가 수전 손택은 “현존하는 목시록 문학의 최고 걸작”이라 극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크라시너호르카이는 ‘저항의 멜랑콜리’, ‘전쟁과 전쟁’, ‘세상은 계속된다’ 등에서 시대의 불안과 인간의 고독을 탐구하며, 절망 속에서도 예술이 지닌 의미를 묻는 작가로 자리매김했다. /최명진 기자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 | | | | | |
|---------------------|----------------------|---------------------|---------------------|---------------------|
| 시내 지역 | • 중앙지국 222-8171 | • 상무지국 453-2554 | • 유동지국 222-8171 | • 오치지국 261-9461 |
| | • 산수지국 224-4188 | • 광천지국 374-2120 | • 운암지국 529-3548 | • 문흥지국 261-9462 |
| | • 학운지국 673-6836 | • 진월지국 676-2726 | • 용봉지국 261-1503 | • 일곡지국 573-3200 |
| | • 화정지국 372-9140 | • 봉선지국 673-6836 | • 신가지국 954-1420 | • 첨단지국 971-7374 |
| | • 금호지국 376-7153 | • 백운지국 673-0123 | • 양산지국 574-3745 | • 치평지국 371-9584 |
| 지방 지사 | • 풍암지국 603-0311 | • 두암지국 266-1920 | • 하남지국 951-9954 | • 수완지국 955-0451 |
| | • 노대지국 674-3581 | • 농성지국 362-4102 | • 운남지국 952-1687 | • 광산지사 944-0993 |
| | • 목포지사 061)270-8689 | • 나주지사 061)335-0005 | • 보성지사 061)852-6644 | • 무안지사 061)453-3645 |
| | • 동곡포지사 061)278-0740 | • 광양지사 061)793-6800 | • 화순지사 061)373-7795 | • 함평지사 061)322-0882 |
| |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 구례지사 061)782-4696 | • 장흥지사 061)863-6800 | • 영광지사 061)353-5133 |
| • 신안지사 061)980-8300 | • 담양지사 061)383-5566 | • 강진지사 061)432-8899 | • 장성지사 061)394-3636 | |
| • 순천지사 061)746-1600 | • 곡성지사 061)362-5746 | • 해남지사 061)535-5849 | • 완도지사 061)555-0134 | |
| • 여수지사 061)651-6433 | • 고흥지사 061)832-6290 | • 영암지사 061)473-7151 | • 진도지사 061)542-4330 | |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